

통신3사, 5G 포화 속 AI 기반 신사업으로 성장 돌파구 모색

3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전망

SKT, '에이닷' 개편 4.91% 영업이익 ↑
KT, 전년비 37% 증가 영업익 4549억
LGU+, B2B AI전략 수익성 개선 목표

통신3사가 신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본업인 통신사업의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T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상승하면서 통신사 전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1조215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연간 합산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7582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다시 1조원대를 회복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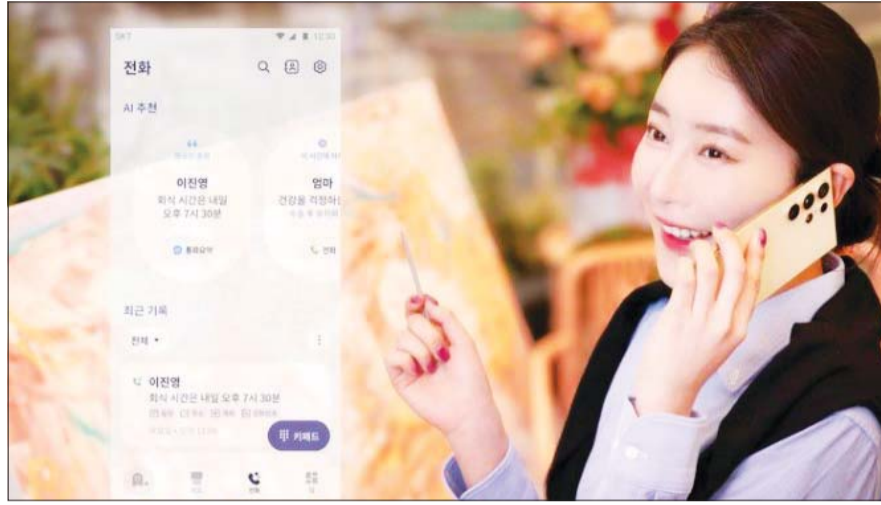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간판. /뉴스시스

4.91% 증가하고 KT가 37.2% 상승하면서 실적 전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1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실적은 통신사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 순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 3사는 본업인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보면 가장 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KT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개편된 SKT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모델이 사용하고 있다. /SKT

4549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선 KT의 실적에는 임금단체 협상 관련 비용이 앞선 분기에 반영되면서 전체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KT는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일시적 비용을 3분기에 포함했지만 올해는 2분기에 진행됐다. 실제 지난해 임단협 결과가 반영된 KT의 3분기 실적을 보면 1400억원 규모의 지출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AICT 컴퍼니 비전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KT는 사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와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AI 전환(AX) 전문기업'을 설립해 내년 1분기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MS와의 협력으로 최고의 AI·클라우드 역량을 갖추게 되면 KT는 대한민국의 기업·개인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맞춤형 A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도 AI 등 비통신 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SKT는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개편을 통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에이닷의 이용자수는 개편이전 보다 91만명 증가하며 49% 급증하며 모바일 앱 1위를 기록했다. 또 연내 글로벌 PAA(개인형 AI 비서) 출시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생성형 AI인 엑사원을 중심으로 한 B2B(기업 간 거래)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 지출이 마무리 됨에 따라 통신 특화 서비스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U+는 올해도 영업전산시스템 관련무형자산상각비 부담으로 인해 올해까지도 실적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점차 실적 우려가 줄어드는 동시에 장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윤 "생활 잠재력 깨워 인류미래 혁신"

(삼양홀딩스 회장)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킨텍스에서 '뉴 삼양 페스티벌' 개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 전략을 임직원 및 가족과 공유했다.

삼양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뉴 삼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양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함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4200명이 참석했다.

김윤 회장은 "100년 전에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대역사로 시작된 삼양의 개척 정신이 다음 10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에 대한 결론과 답은 새로 정립한 기업 소명에 담겨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삼양그룹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삼양그룹이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NEW SAMYANG FESTIVAL' 전경. /삼양홀딩스

한번 새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은 새로운 기업 소명인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소개하며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삼양의 다음 100년 역사에도 모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임직원 대표들은 삼양그룹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는 풍등을 띄

웠으며, 임직원들은 각자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렸다.

삼양그룹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하자는 다짐을 담아 유명작곡가 켄지가 작사·작곡한 노래 '세상의 빛'과 '위드유(With You), 삼양' 두 곡을 선보였다.

한편 삼양그룹은 1924년 10월 1일 창립 이후 지난 100년간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기업형 농장을 설립해 농촌 근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만주에 불모지를 개간, 산업 농지화해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1955년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당공장을 준공해 설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1969년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사업에 진출해 전주에 대단위 공장을 세워 세계 10대 화학섬유회사로 성장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

문혁수 "글로벌 인재 직접 찾는다"

(LG이노텍 대표)

미국서 '이노 커넥트' 진행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사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LG이노텍은 문혁수 대표가 최근 김홍식 최고인사책임자(CHO), 노승원 최고기술책임자(CTO)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EO가 직접 참석한 이번 채용 행사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표 경영 방침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포드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주립대, 퍼듀대 등 미국 주요

20여개 대학 박사 및 박사 경력 보유자 32명이 초청됐다. 참석 인재들의 연구 분야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XR(확장현실), 로보틱스 등으로 LG이노텍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관이 깊다.

문 대표와 경영진들은 이 행사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이들과 공유했다. 특히 문 대표는 경영진과 함께 'C레벨과의 대화(Talk With C-Levels)' 세션을 열고 회사의 전략, 기술 로드맵,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을 주제로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과학,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차별화 기술력과 미래 준비 현황, AI/디지털 트윈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남영 기자

삼성SDI, 배터리 인재 영입에 경영진 총출동

영국 런던서 'T&C 포럼' 개최

삼성SDI가 초격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SDI는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T&C 포럼(Tech & Career Forum)'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T&C 포럼은 삼성SDI의 주요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 삼성SDI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8월 미국 보스턴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됐다.

포럼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과 참석

자들 간의 소통 프로그램인 '비전 토크'를 비롯해 연구소장의 키노트 스피치, 개발 주요 부문별 임원들의 테크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을 전시하며 참석자들이 삼성SDI의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테크 세션에서는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삼성SDI의 연구 개발 성과 및 전략, 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법 등 미래 기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발 임원들이 직접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NCA 양극재 공장 가동... 수주 대응력 강화

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 오픈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포스코퓨처엠은 NCA 양극재 전용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초도출하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으로, 니켈 외에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3년 1월 삼성SDI와 약 40조원의 공급계약을 맺고 광양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 NCA 양극재를 공급 중이며,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건설 중인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계획보다 약 3개월 앞

당겨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첫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광양에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5만2500톤의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향후 연산 8만2500톤의 NCA 양극재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차현정 기자